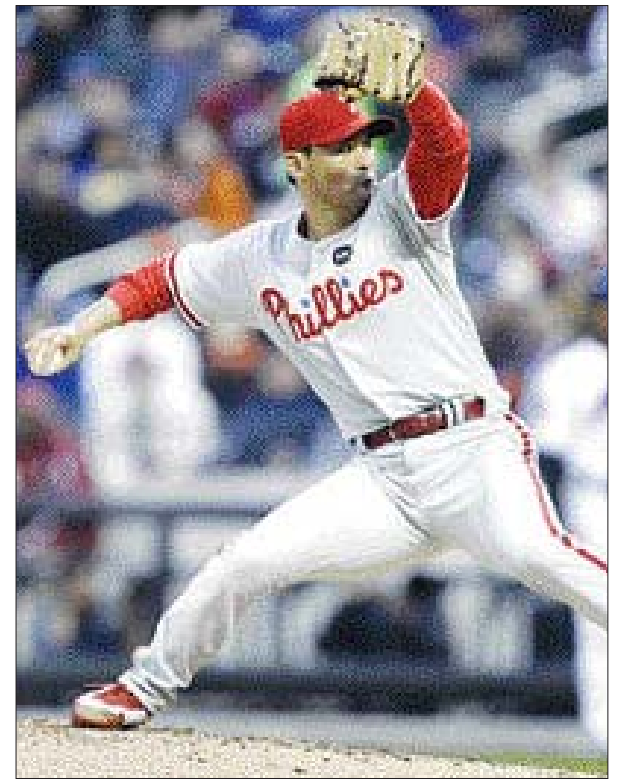




'KB 스타투어' 오늘 함평다이내스티서 티샷

7일 함평다이내스티CC에서 열린 KB국민은행스타투어 프로암 대회에서 김하늘 선수가 티샷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찬호 부활투

뉴욕 메츠전 선발 60닝 5K 무실점

박찬호(36·필라델피아 필리스·사진)가 60닝 무실점의 눈부신 역투를 펼쳤다. 박찬호는 7일(한국시간) 뉴욕 시티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뉴욕 메츠와 방문경기에서 선발 투수로 등판, 60닝 동안 단 1안타만 내주고 삼진 5개를 빼앗으며 메츠 타선을 공포 묶었다. 박찬호는 0-0으로 팽팽히 맞선 7회초 필라델피아 공격 때 대 에릭 브루넷과 교체됐다.

완벽한 부활투였다.

사이영상 2회 수상에 빛나는 메이저리그 특급 좌완 호안 산타나와 선발 대결을 펼친 박찬호는 최고 구속 150km의 포심 패스트볼과 싱커, 체인지업을 섞어 던지며 메이저리그 팀 타율 4위(0.282)의 메츠 강타선을 요리했다.

특히 이날 경기 전까지 4할을 넘은 메츠 3번 타자 카를로스 벨트란을 삼진과 내야 땅볼, 평범한 외야플라이로 모두 돌려세웠다.

찰리 매뉴얼 필라델피아 감독은 7회초 라울 이바네스가 2루타로 출루하자 2사 후 9번 타석에 대타 브런틀렛을 기용해 박찬호는 더 이상 마운드에 서지 못했다.

메츠는 7회말 2사 1루에서 박찬호와 스콧 아이어에 이어 마운드에 오른 채드 더빈을 상대로 대타 페르난도 타티스가 내야안타를 쳤고 3루수 페드로 켈리스의 악송구로 볼이 빠지지 주자가 홈까지 파고들어 결승점을 땀었다.

/연합뉴스

서희경 등 108명 '환상의 샷 대결'

어제 프로암 대회... 강한 바람 선두 다툼 변수로

'명품 골프장에서 환상의 샷 잔치가 펼쳐진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2009 KB국민은행 스타투어 1차대회가 4개월 푸른 양산디 골프장 함평다이내스티CC에서 열린다. 7일 프로암대회를 시작으로 8~10일까지 3라운드 54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펼쳐질 이번 대회에는 지난해 우승자 조아람을 비롯해 2009년 태영배 우승자 서희경과 안선주·최혜용·김하늘·김보경·홍란 등 국내 정상급 프로선수 108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이번 대회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는 최혜용·안선주·김하늘 조는 오전 10시14분에, 그리고 조아람·서희경·김보경 조는 10시23분에 티오

프할 예정이다. 대회 첫날은 강한 바람이 순위 결정에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프로암 대회가 열린 6일 오전부터 불기 시작한 바람이 7일까지 계속 불 것 이라고 기상청은 예측했다. 이에 따라 첫 날 샷 대결은 여느때와 달리 긴장 속에 경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초반 평정심을 잃고 흔들릴 경우 남은 경기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어 강한 정신력과 집중력을 필요로 한다. 프로암대회에 출전한 선수들도 이구동성으로 "내일이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불면 정말 힘든 경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악천후 속 경기에선 동계훈련지를 바람이 많이 부는 바닷가나 산 높은 곳을 택한 선수들에게 다소 유리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그만큼 변화무쌍한 풍향에 비교적 빨리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진철 전남과학대 교수는 "뒷바람이 불때 티샷은 티를 높게 꽂고 볼을 띄워치고, 앞바람이 불어오면 낮게 티를 꽂고 볼을 낮게 치는게 유리하다"면서 "무엇보다도 악천후에선 선수들 자신이 흔들리지 않고 빨리 평정심을 갖는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첫 날 강풍 속 펼쳐진 샷대결의 결과가 이번 대회 순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누가 선두로 나설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프로암대회 이모저모

민병덕부회장·선종구 회장 시타

○7일 열린 프로암대회에서는 민병덕 국민은행부회장과 선종구 KLPGA회장 그리고 고재 김용현·양옥란씨 등 4명이 시타. 특히 양씨의 시타 볼에서 연기가 나오지 않아 사회자가 멀리건(mulligan·실수한 티샷을 다시 치도록하는 것)을 선언, 참가자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반면에 민 부회장과 선 회장의 티샷은 기존 선수들 못지않게 멋지게 성공시켜 주위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개그맨 이창명 라운딩서 굿~샷

○이날 시타시 사회를 맡은 개그맨 이창명의 능숙한 진행으로 시종일관 즐거운 분위기. 특유의 재담으로 딱딱해지긴 쉬운 시타시를 부드럽게 유도하는 등 오랜 골프 MC 경력을 유감없이 발휘. 구력 10년에 베스트 2인더의 프로 못지않은 실력을 가진 이 씨는 라운딩에서도 놀라운 샷을 과시, 주위의 놀라움을 사기도.

'명품코스' 주변경관에 감탄연발

○프로암에 참가한 대부분 프로골퍼들은 함평다이내스티CC의 코스와 주변경관에 이구동성으로 찬사. 특히 김하늘 프로는 "국내에서 경관이 뛰어난 골프장 중 한 곳" 이 라면서 "코스 난이도도 높아 결코 쉽지않은 경기가 될것"이라고 전망. 이날 참가한 대부분 프로골퍼들은 GPS를 활용, 거리를 산출하는 등 코스 파악에 신중한 모습도.

■ 주요 선수 출전소감 ▲ 김하늘=동계훈련을 성실하게 해서 감이 좋아요 ▲ 서희경=컨디션은 좋고, 매 게임마다 최선을 다하겠다 ▲ 최혜용=올 시즌 2승 목표로 열심히 필터 ▲ 윤슬아=코스는 어렵지만 정상을 향해 도전하고파 ▲ 정재은= 올 시즌 3승 정도는 해야죠 ▲ 오채아=강풍이 승부의 변수 될듯 ▲ 임지나=매출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 있겠쥬 ▲ 홍란=올시즌 후반기에 승부 걸겠다. /서승원기자 swseo@



KB국민은행스타투어 프로암대회에 앞서 40명의 프로선수와 120명의 아마추어 골퍼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페어웨이·그린 최고... 대회 준비 완벽

함평다이내스티 골프장은

함평다이내스티CC는 이번 KB국민은행 스타투어 개막전을 앞두고 지난달부터 완벽한 대회 준비를 위해 만전을 기했다. 특히 선수들이 최상의 코스에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페어웨이와 그린 상태를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지난 2006년 9월 스타투어 3차 대회와 2007년 스타투어 2차 대회 그리고 지난해 스타투어 1차 대회를 치르면서 참가 선수들로부터 '최상의 그린'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함평다이내스티 CC는 이번 대회에도 주변 경관 조성과 코스 관리에 최선을 다했다.

특히 그린스피드를 지난해 10~10.5피트 정도로 다듬는 등 그린을 정규 대회규정에 맞도록 조성했고 페어웨이는 예고(잔디를 깎아 놓은 높이) 20mm를 유지하도록 했다. 잔디고 20mm는 공이 잔디에 파 묻히지 않고 잔디위에 올라있게 돼 샷을 하는데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높이다. 또한 잔디밀도도 공이 잔디 안에 밀려 들어가지나 파묻히지 않도록 했다. 한편 함평다이내스티CC는 지난달부터 대회 준비를 위해 잔디나 그린 이외에도 주변 환경까지 관리하는 등 골프장을 최상의 상태로 관리해 왔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추신수 한 경기서 3안타

추신수(27·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올 시즌들어 처음으로 한 경기에 3안타를 몰아치는 맹타를 휘둘렀다. 추신수는 7일(한국시간) 보스턴 레드삭스파크에서 열린 보스턴 레드삭스와 방문경기에서 우익수 겸 4번 타자로 출장해 5타수 3안타를 때리고 타점도 올렸다. 타율은 0.253에서 0.271(96타수26안타)로 올라갔다. 2회 유격수 앞 땅볼로 물러난 추신수는 4회초 선두타자로 나와 중전안타를 치고 나갔으나 후속타가 터지지 않으면서 득점을 올리지 못했다. 클리블랜드가 3-2로 앞선 5회초 2사2루에서 추신수는 저스틴 마스터스의 시속 138km짜리 슬라이더를 받아쳐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적시타를 터뜨려 2루 주자를 홈에 불러들였다. 시즌 14번째 타점으로 2경기 만에 타점을 더했다. 7회 유격수 뜬 공으로 아웃된 추신수는 9회초 마지막 타석에서 좌익수 앞 안타를 뽑아낸 뒤 벤 프란시스코의 적시타 때 홈을 밟으면서 시즌 13번째 득점도 올렸다.

팔꿈치 부상 서재응 2군행

팔꿈치 통증으로 선발 로테이션에서 빠진 서재응이 2군으로 내려갔다. KIA 타이거즈는 7일 서재응을 2군으로 내리고, 조태수를 1군으로 불러들였다. 서재응은 지난 6일 히어로즈와의 원정경기에서 선발로 예고됐으나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면서 경기 전 임준혁과 긴급 교체됐다. 당초 통증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 다음 로테이션 때 선발전에 재합류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7일 MRI 촬영 결과 오른쪽 팔꿈치 관절내 소량의 부종 증세가 있다는 진단이 나오면서 서재응의 2군행이 결정됐다. 서재응은 앞으로 3~4일 정도 통증치료와 함께 안정을 취한 뒤 캐치볼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재응은 뉴욕메츠 시절인 1999년 팔꿈치 수술을 받았고, 지난해 6월에도 팔꿈치 통증으로 재활군에 내려간 뒤 78일 동안 1군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 한편 지난해 말 상무에서 제대한 조태수는 2006년 9월24일 당시 현대전에 마지막으로 등판한 이후 2년여만에 1군에 복귀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